

재현과 제도를 넘어, 진격하는 걸 페미니스트들

- 서평: 『소녀들』(여이연, 2017. 9), 『걸 페미니즘』(교육공동체넷, 2018. 2)

류진희 *

차례

1. 들어가며: '스쿨 미투'로부터
2. 스펙터클로서의 『소녀들』
3. '나' 답게, 『걸 페미니즘』
4. 나오며: 혐오와 차별을 넘어

〈국문초록〉

최근 '스쿨 미투'에서 볼 수 있듯, 페미니즘 리부트 혹은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에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대대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글은 이분법적 젠더와 사회적 권위가 교차하면서 오랫동안 비가시화됐던 여성 청소년들을 재현의 대상으로, 그리고 운동의 주체로 전면적으로 다룬 두 책에 주목한다.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나란히 간행된 『소녀들』(2017.9)과 『걸 페미니즘』(2018.2)은 신자유주의 스펙터클로서 페미니즘의 적극적인 해석의 대상으로, 혹은 '나'답게를 내걸고 새로운 페미니스트 주체로 여성 청소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글은 재현과 제도를 넘어 '지금-여기' 어떠한 '소녀(girl)' 주체가 창출되고 있는지 가늠하고, 제도화된 재현으로서 정전 문학과 다른 어떤 서사가 필요한지 짐작해보고자 한다.

핵심어 : 소녀, 걸, 페미니즘, 걸 페미니즘, 청소년 보호법, 스쿨 미투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초빙교수

1. 들어가며: ‘스쿨 미투’로부터

2015년 메르스 정국에서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미러링 스피치를 내세우는 호전적인 ‘메갈리안’이 등장했다. 이후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겪어내며 20·30대 여성들이 맹렬하게 넷과 광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이제 ‘여성혐오(misogyny)’는 단지 제도의 미비나 개인의 노력 정도에서 해결될 차원이 아니라, 언어와 상징에 기입된 구조적 차별에서 연원한다고 했다.¹⁾ 2017년 온라인에서부터 터져나왔던 ‘#문단_내_성폭력’ 등 해시태그 운동들은 여성을 재현하는 제도를 타깃했다. 그리고 2018년 전세계적인 ‘미투(Metoo)’로 터져나왔던 “나도 말할 수 있다”는 고백들은, 수년간 매해 노벨상 후보로 회자됐던 민족시인까지도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했다.²⁾

그리고 붓물 터지듯 이 고발의 목소리는 이제 공고하게만 보였던 학교 담벼락 안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여자고등학교 3개 층 창문에 만든 거대한 “#with you, we can do anything, #me too” 메시지가 ‘스쿨 미투’의 신호탄으로 쏘아올려졌다.³⁾ “여자라서 죽었다”는 강남역 10번 출

1) 여성에 대한 멸시뿐 아니라, 승배까지도 포함하는 ‘misogyny’의 번역어로 단지 ‘여성혐오’가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단어가 여성 타자화를 총체적으로 포함하지 않기에 ‘남성혐오’와의 유사대칭이 주장되는 근거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혐오가 유력한 키워드로 널리 회자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진전에서 폭발했던 여러 혐오의 정동 중 한국에서 유독 여성에 대한 혐오가 발화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련한 논의들은 김주희, 『오늘 왜 페미니즘은 혐오와 접속했는가 -『말과 활』 2016년 가을 혁신호 발간 기념 토론회 후기』, 『말과 활』 제 12호, 일곱번째썸, 2016 겨울, 105~113쪽.

2)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고발 이후, 대대적으로 촉발된 한국의 ‘미투’ 정국에서 2017년 『황해문화』 겨울호에 실린 최영미의 시 『괴물』이 새삼 주목됐다. 이는 문학 내 성추행 고발의 일환으로 고은 시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후 최영미는 미투운동 확산에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성평등상을 수상했고, 내내 침묵하던 고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최영미에게 1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3) 2018년 3월 용화여자고등학교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가 졸업생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과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재학생들

구를 뒤엎은 바로 그 포스트 잇이었다. 그리고 이는 “가만히 있으라”던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던 노란 리본까지 단박에 상기시켰다. 제도화된 권위와 젠더화된 위치라는 이중의 억압에 처해있던 10대 여성들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들끓처럼 일어났다.

그리고 애초 학내 성폭행과 성희롱을 고발하면서 시작했던 ‘스투 미투’는 내쳐 교육에 스며 있는 여성혐오 문화도 지적했다. 최근 ‘구지가(龜旨歌)’ 사건에서 볼 수 있듯,⁴⁾ 특히 문학은 제도화된 재현물로 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제 정전으로서 한국문학이 거대한 심문대상이 되는데, SNS 상에서는 ‘여혐문학’, ‘남류문학’이라는 명칭까지 스펀지 없이 사용되는 중이다. 이때 문학이 원체 젠더화된 매체 장에서 창출된 것으로, 그에 대해 여성들이 비판적으로 개입해왔던 역사도 재차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페미니즘 비평론의 필요성을 재차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다.

다만 페미니즘 리부트 혹은 대중화 국면에서, 이제 문학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를 교육하는 환경이 전투의 장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이때 당사자로서 여성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제 이 글은 ‘소녀(girl)’가 적극적인 해석의 대상 혹은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하고, 그 각각을 조명하는 책들로 마침 올해 연달아 간행된 『소녀들』(2017. 9), 『걸 페미니즘』(2018. 2)을 살펴보려 한다. 이 두 책은 페미니즘을 유력한 인식론이자 방법론으로 공유하는, 10대 여성상을 분석하는 성인 연구자들의 시선과 여성 청소년들의 입장을 더블

이 ‘창문 미투’로 화답한 것이 전국적인 스쿨 미투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8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교가 학생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파면, 해임, 계약해지, 정직, 견책, 경고하기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4) 2018년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고전문학 수업에서 교사가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의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놓아라’를 ‘남근’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시연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따라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내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2학기 수업배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어 짝맞춰 볼 수 있게 한다.

2. 스펙터클로서의 『소녀들』

먼저 『소녀들』은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 10대 여성들의 재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지금-여기’에 “페미니스트 소녀학”(5쪽)이 필요하다고 천명한다.⁵⁾ 그 이유는 이 대 중문화들에서 드러나는 10대 여성상들이 실제 그들의 삶과 상관없다는 일침을 넘어, 특정 소녀성(girlhood)이 구축되는 국면으로 중요하게 포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소녀들의 재현을 구성되고 매개된 것으로 분석하자면, 이 과정에 연루된 실제 소녀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는 동시에 그에 균열을 가하는지도 역동적으로 볼 수 있다.

오랫동안 10대 여성은 나이를 비롯한 사회적 권위와 이분법적 젠더라는 위계가 교차하면서 비가시화됐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은 지난 몇 년간 한국 매체 장 곳곳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소녀들을 떠올리면 의아하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동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의미있는 여성 출연자 혹은 여성 캐릭터가 부재했음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이웃집 말괄량이 소녀들은 언제나 옆집 말썽쟁이 남성의 짝으로서, 혹은 그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복고적 감성으로 지속적으로 소환됐다. 예를 들자면, 드라마 <응답하라 1997·1994·1988>(tvN, 2012, 2013, 2015) 시리즈는 시간을 역진하며 천방지축 ‘개딸’들의 남편 찾기를 거듭해 보여주면서, 전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케이블방송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물론 이러한 같은 학교, 같은 하숙집, 같은 골목에서 가능했던 일종의 유사 근친 로맨스는 가족의 해체와 장거리 이주, 그리고 가부장권의 약화

5) 이 장에서 서평 대상인 『소녀들』(조혜영 엮음, 도서출판 여이연, 2017. 9)의 직·간접 인용은 괄호 안 쪽수로 대신한다.

에서 일어나는 근과거 노스텔지어에 가깝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급진전에서 '88만원 세대'로 시선을 끌었던 청년문제는 어느새 '3포·5포·7포 세대'로까지 운위되고 있다. 이러한 '헬조선' 디스토피아에서 이제 '흙수저'들은 언감생신 꿈도 못꾸는 사회적 안정망이 다시 가부장 중심의 핵가족으로 상상되는 것이다. 밀레니엄을 앞두고 시대를 대표하는 10대 여성 한 명의 얼굴로 시작했던 이 드라마 시리즈가 결국 끝에서는 사람 가득한 골목 공동체의 일원 중 하나로 자리잡는 1980년대 대가족 사진으로 끝나듯 말이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디스토피아는 1987년 민주화 달성과 1997년 IMF 금융위기 사이에서 잠시 가능했던 짧았던 유토피아 이후의 세계이다. 스펙터클로서 소녀의 형상을 문제삼기 전에 이때 어떤 역사들은 희미해지고, 어떤 주체들은 삭제된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첫 사랑이 남편이 되는 이러한 반복되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를 말하면서 공사영역의 구분에 저항했던 여성운동을 괄호친다. 즉 이분법적 남녀역할을 문화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규범적 성에 대항하는 흐름에서 성소수자들의 일원으로 연대적 입지를 주장했던 영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이 흐릿해지는 것이다.⁶⁾

그리고 무엇보다 1990년대 폭발하는 대중문화와 함께 약진하던 여성들의 문화실천들이 아예 가려진다. 아이돌 그룹 멤버끼리의 남성 동성서사를 써내면서 "오빠들은 내 삶의 전부였다"던 <응답하라 1997>이 "내 끝 사랑은 가족입니다"는 <응답하라 1988>로 대체됐듯 말이다. 여성들의 문화적 실천은 후경화하고, 아무도 몰락하지 않고 홀로 되지 않는 이들 남녀 주인공들의 낭만적 사랑은 한명 빠짐없이 성취된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들은 결국 이성애적 가부장 체제를 지지하는데, 이때 어떤 여성들은

6) 2017년 탄핵정국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광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여성 전사(戰士)들의 문화적 전사(前史)에 대해서는 류진희, 『넷-광장 페미니스트, 전사들의 등장』 『문학3』 제3호, 창비, 2017, 44~57쪽.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은 IM~ 이후 ‘고개 숙인 아버지’ 재현에 포위되어 한참 말해지지 않았던, 정리해고의 칼날이 정확히 겨냥했던 노동하는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상가족의 바깥에서 생존해온 여성청년들도 연애·결혼·출산을 고양하는 목적으로 제안되는 인구정책에서 잘 포착되지 못했다. 실제로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가정의 안팎에서 출몰했던 여성 청소년들 역시 전혀 주목되지 않았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황량한 무대에 스펙터클로서 소녀들만이 남게 됐던 것이다. 이들 소녀들은 성장동력이 없는 한국 경제를 다시 살려낼 콘텐츠산업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력으로, 대체가능한 인력자원으로 해외무대에 진출하기도 했었다.

바야흐로 드라마가 중심이었던 ‘한류 1.0’와 K-pop 시대였던 ‘한류 2.0’를 지나, 이제 이 둘의 융합과 확장으로 ‘한류 3.0’이 문화전반에서 주장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이 우선 엔터테인먼트 장르 영화라는 장르에서 소녀들이 제각기 부상하고 배치되는 양상을 다루고 있음은 적절해 보인다. 보이그룹과 걸 그룹이 병진했던 한 시기를 지나 어느 순간 소녀 컨셉의 걸 그룹만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당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외모와 역할이 기대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언제나 소녀의 몸은 그 사회에서 산출되는 문화적 타자와 관련을 맺으며, 근대의 정상적 시민성을 구성해낸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소녀에 대한 정의를 내릴때, 그들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무엇인가”로 질문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보통 소녀는 “유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인위적인 문화가 개입한 틈으로, 어린 여자가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과업을 완수하여 진정한 여성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를 수행하는 시기”(30쪽)에 ‘피할 수 없이 성별화된 문화적 관점들’(32쪽)과 관련을 맺는다. 지금의 소녀는 성인과 완전히 분리되는 유예된 삶을 살면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금지됐기에 더욱 강렬한 성적 위반의 표지들을 지니게 됐다. 이들은 근대 전환기 도전하는 행위자로 상징적 지위를 가지는 소년도 아니었고, 식민지 모더니티를 드러내는 신여성

과도 구분되는 존재였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떤 근대적 변화와도 상관없이 이해됐기에, 오히려 위기의 어떤 국면마다 모든 잘못을 드러내는, 혹은 그를 상쇄시킬 구원투수로 소환됐다.

이미지 상품과 아티스트 사이에서 요동치는 아이돌 소녀들은 아이유처럼 ‘롤리타 콤플렉스’ 논쟁에 휩싸이기도 하고, 단지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를 들었다는 이유로 쓰위처럼 동아시아적 사건에 소환되기도 한다. 남성중심적인 ‘K저씨’엔터테인먼트, 혹은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K’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들은 제작사도 방송사도, 그리고 소속사까지도 필요할 때마다 거의 사라지는 무대에 늘 홀로 맞서거나 사과하거나 했다. 마치 식민과 분단 이후 한반도 반쪽, 아무 자원도 없는 남한에서 맨먼저 동원했던 쪽이 여성노동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우리의 소녀’는 어느새 “불온한 소녀”(52쪽)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는 스펙터클이면서도 동시에 소녀들의 주체성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 책의 기본 입장을 드러낸다.

그러나 언뜻 토폴리스(topless) 시위를 감행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시골길 노브라’ 사진을 비롯, 각종 성적인 이미지를 자주 개인 SNS에 올리는 설리는 ‘스스로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도전하는 것인지’(53쪽). 한 명 한 명에 대한 질문은 계속 이어지나, 각각을 입체적으로 읽어내기는 녹록치 않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질성을 담보하는 존재로 영화에서 ‘퀴어소녀’가 드러나는 것은 꽤 고무적이다. 이들은 정상성을 요구하는 주류에서 내쳐졌지만 그 체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걸 스케이프’(girlscape)(15쪽)를 그려낸다. “미디어를 타고 지역적이지만 전지구적으로 유통하는, 그리하여 분열과 충돌 속에서 스펙터클을 넘어서는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복수의 소녀들”(16쪽)이 등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코드로 여성들의 관계는 단지 묘할 뿐이라고 하거나, 로맨스라기 보다 동지애”(108쪽)라고 애써 외면해도 로맨티시즘과 탐미주의, 그리고 교복페티시를 뒤로하고, 날것이고 난폭한

소녀들도 등장한다. 그 새로운 소녀성의 가능성까지를 탐구하는 이 책은 가부장체제와 그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문화시장, 그리고 남성중심적 시각장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뉴-걸’(New girl)들이 나타났다고 한다. 기존 소녀성에 포획되지 않는 소녀들은 더 이상 남성이 보호하거나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의 권위에 저항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가부장적 국가를 넘어 그를 둘러싼 초국가적 맥락에서 때로는 저항적으로 소녀들이 등장하는 것은 ‘위안부’ 소녀상이 촉발했던 역동적인 연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소녀들을 향한 대상화와 주체화 문제를 한번씩 언급하며, 전체 기획의 공정함을 적당히 드러내는데 멈추지 않는다. 현재 양적으로 다수, 혹은 집단이어야만 최상의 영향력을 발휘해내는 소녀‘들’에 대해서도 비평하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순결주의에 기반한 ‘민족의 딸’이라는 이미지를 초과하는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소녀상을 최근 리얼 서바이벌 무대에서 대규모로 춤을 추는 <프로듀스 1010>의 소녀들에게로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다시 말해 다급히 복사되는 소녀상들은 이제는 몇 분 생존해있지도 않은 할머니 ‘위안부’들의 증언과 존재가 고유성을 지닌 한명 한명이라기보다 양적인 집단으로 의미화했던 맥락을 상기시킨다.

이렇듯 역사의 모순을 물질화하는 ‘이상(異常)한 이상화(理想化)’(183쪽)는 한국의 각종 기획사에서 총동원된 연습생으로 제작됐던 <프로듀스 101> 시즌 1의 소녀들과 재차 겹쳐지기도 한다. 순위를 위계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대한 삼각형 모양 무대에서 집단적으로 춤을 추는 소녀들은 걸 그룹이 언제나 다수의 멤버를 통해 칼군무 등으로 이뤄지는 딱 찬 무대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극단적으로 시각화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무한경쟁 시대에 그나마 재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노래하며 계급 상승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헬조선의 청년을 ‘이제 꽃길만 걸자’고 위무한다. 이런 흐름에서 한 명의 소녀, 누구와도 닮지 않은 개별적 존재성을 찾아가는 당사자들의 시도는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돌이켜보면 1987년과 1997년 이후로도 한국 사회는 슬한 정치적 격동

을 겪어왔고, 이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혹은 탈정치 시대의 정치로 새로이 투쟁하는 주체로 꼽힌 것은 바로 이들 여성이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미선·효순 압살사건 당시, 또래 10대 여성의 희생을 지나칠 수 없었던 인근 여고생들이 쥐었던 작은 촛불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를 거치며 새로운 시대의 유력한 시위 형식으로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떠올랐고, 이후 보수화되는 교육과 오작동하는 국가에 대해 10대 여성들도 자주 광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논란으로 보수정권을 향한 촛불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 절정에서 누구보다 시대의 상징으로 촛불소녀가 주목됐던 것이다. 그때로부터 계속 광장에 여성 청소년들이 함께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촛불소녀들은 그 순간의 기특한 대상일 뿐,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자기 이슈와 자기 입지를 만들어온 연속되는 주체로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메갈리안을 비롯해 넷과 광장을 중형무진하는 산발적이고도 집체적인 여성들이 등장했을 때, 이들이 마치 하늘에서나 떨어진 것처럼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⁷⁾

그렇다면 이제 스펙터클로서의 소녀들이라는 장막을 걷고, 『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일 차례이다. 즉 제도의 압박 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나’답게를 외칠 수 있는지, 그들 당사자들의 고군분투를 살펴보자.

3. ‘나’ 답게, 『걸 페미니즘』

최근 성폭행 생존자가 전했다는 “소녀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고, 강력

7) 남녀 성별전환의 메갈리아 미러링을 내세운 메갈리안들은 사실 2000년대 이후 고등교육의 진전과 대중문화의 폭발, 그리고 온라인 공간의 확장 등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종종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중요 국면에서 출몰했던 이들은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등 그 근과거적 연원과 더불어 논해져야한다. 류진희, 『그들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말, 메갈리아 미러링』,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2016, 126~151쪽.

한 여성으로 변해 당신의 세계를 박살 내려 돌아온다”는 말이 회자됐다. 그러나 이제 성인여성이 되길 기다리지 않고, ‘지금-여기’ 당장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내려는 여성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페미니즘을 주창하고 나섰다. 그리고 공고하게만 보였던 제도를 향해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그리고 성평등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를 주장하고 있다. 수년간 이미지로 떠돌던 아이콘으로서 소녀는 신자유주의의 여러 매체 장에서 스펙터클로 재현됐다. 그러나 그 한쪽에서는 촛불소녀의 후예, 정치적인 소녀들도 등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촛불소녀와 배운녀자가 다시 메갈리안이 되고, 불편한 용기를 내어 낙태합법화와 임신중단권까지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왜 소녀가 아니라 걸일까. 재현대상으로서 소녀가 아니라 자기 재현을 선언하는 ‘걸(girl)’은 일상적 번역어로 오히려 자국어에 붙을 수 밖에 없는 역사적 맥락을 잠시 탈각시킬 수 있다. 청순이나 명랑이나 전형적 수식어를 떠올리게 하는 ‘소녀’보다, “Girls do not need a prince”나 “Girls can do anything” 등 최근 페미니즘 구호로 혹은 굿즈(goods)에서 자주 취해지는 자기정의는 ‘걸’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 때문에 앞의 책 『소녀들』이 전체적으로 재현의 현재적 의미, 혹은 재현의 구성적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던 것에 비해, 교육공동체벗에서 나온 『걸 페미니즘』은 여성 청소년 혹은 관련 운동가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데 집중한다. 한 글자에서 세 글자까지의 푹푹 튀는 이름을 골고루 가진 무려 27명의 필자들은 ‘나’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거침없이 말한다.

이 책은 젠더화된 교육, 차별적 학교, 배제된 존재 등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마지막으로 동시대 그들을 둘러싼 재현의 문제를 다룰 때만 “당신들의 ‘소녀’, 그 너머”로 장을 구별했다. 물론 이들을 가르키는 법적인 용어로는 청소년이 있지만, 개념에 작동하는 젠더를 드러내기 위하여 여성 청소년을 한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명칭도 때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성별 대칭효과가 오히려 도드라지기 때문인지 크게

활용되지는 못하는 듯하다. 그래서 이 책은 “누군가의 이미 지나거버린 과거도 아니고, 누군가의 기특하다는 격려도 필요없다는, 같은 여성으로도 같은 청소년으로도 묶일 수 없는 여성 청소년 페미니즘”(9쪽)을 말한다.⁸⁾

사실 청소년과 다른 근대 부르주아 성인이란 기실은 이성애적 가부장 체제를 지탱하는 성적 존재, 특히 자율성을 가진 남성만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는 타락한 귀족과 다른 건전함을 스스로의 자질로 설정하고, 공사 분리의 성별 역할에 근간한 성규범을 강조하는 부르주아 윤리에서 창출된 것이었다. 즉 자신의 계급적 기반으로 근대 핵가족이 지목될 때, 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계급 재생산의 측면에서 예비되는 존재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기의 창출에서조차 소년이 아닌 소녀는 독자적으로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⁹⁾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특별한 성별구분 없이 청소년관계법이 바로 전술한 노스텔지어의 시공간, 즉 1987년과 1997년 사이의 끝자락에서 입안됐다. 물론 이전에도 요보호 아동 관계법이 있기는 했지만,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의 일생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조치로서 청소년보호가 명기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식민지에 이은 해방 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국가와 경합하는 시민계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독재에 대항하여 직선제라는 성취를 이뤄낸 6월 항쟁을 계기로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갖춰야할 시민적 자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규범성을 고심하면서 청소년이라는 존재 역시 본격적으로 고려됐다고 보인다. 그렇기에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바로 1997년

8) 이 장에서 서평 대상인 『걸 페미니즘』(호야 외 26명 지음, 교육공동체넷, 2018)의 직·간접 인용은 괄호 안 쪽수로 대신한다.

9) 가족이 생산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족통치제도 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행해야했고, 유예된 존재란 있을 수 없었다. 성욕에 비교적 몰두하게 되는 사춘기의 탄생은 바로 성인이 되기전 청소년기라는 공백의 상태가 발견된 이후였다. 관련해서는 앵거스 맥래런, 『20세기 성의 역사』, 임진영 역, 현실문화연구, 2003, 45~83쪽.

에 논란의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됐던 것이겠다.¹⁰⁾ 그리고 지금의 ‘19금’은 바로 1999년, 전체적인 개정 이후 기본꼴을 갖췄다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기존 미성년자가 ‘만 18세 미만’이었던 것보다 더 엄격하게 상향조정하여, 이제 청소년 보호는 어떤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행 자체를 금지하게 했다.¹¹⁾

한국은 해나이, 만나이, 연나이가 혼란스럽게 쓰이는 와중, 병역은 만 18세, 선거권은 만19세, 형법은 만14세, 민법은 만19세 등 연령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적용에서 제외”시킨다는 예외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이는 한마디로 때에 따라서 존재규정이 달라지는 청소년의 가변적 위치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청소년 보호법은 당사자의 혼란보다 위험 요소로부터 그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기에, 그들 스스로 각종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청소년 보호법 제1조)이라는 이 법률의 목적은 성인이 결정한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유해환경의 리스트를 끝도 없이 더해가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당시 청소년보호법은 이적성을 대체하는 유해성, 즉 ‘문화시대의 검열’이라고 비판되기도 했고, 지금 청소년 운동에서 가장 문제삼고 있는 제도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¹²⁾ 이때 “청소년을 보호하라!”는 정언명령은 누구보다 당대 부상했던 새로운 성적 실천을 주장하는 비규범적 존

10) 청소년관계법령은 전사(해방~1986), 형성기(1987~1990), 성장기(1991~2003), 전환기(2004~현재)로 나뉠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이 형성기에,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성장기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길은배, 『청소년관계법령의 발전 과정과 성과, 그리고 과제』, 『미래청소년학회지』 14권 1호, 미래를 여는 청소년 학회, 2017.

11) 청소년 보호법 로엔비 검색.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815>

12) 고길실,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진보평론』, 진보평론사, 1999, 173~195쪽.

재들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일방적으로 삭제해왔다.¹³⁾ 이런 상황에서 『걸 페미니즘』은 청소년이 무성적인 존재로 남아있길 강요하면서, 동성애자를 비롯해 여성 청소년은 항상 성애적으로 주목된다고 폭로한다. 이러한 간극에서 사회의 폭력을 막는다는 구실 아래 그 억압의 대상인 청소년을 외려 단속하는 체제의 모순이 촘촘히 생성되는 것이다. 특히 여성 청소년에 대한 강도 높은 성적 규제는 여성에게 성적 권리를 박탈하고, 인신구속적 통제로 청소년의 순수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 측면이 중첩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회 전반의 정상성을 확보하려는 통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제 성적 대상이지만 성적 주체는 될 수 없었던 여성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성적 실천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여성 청소년이 안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페미니즘”(11쪽)이라고 천명한다. 『걸 페미니즘』에 실린 글들은 다수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고른 논의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울퉁불퉁한 편차조차도 다양한 청소년과 청소년 운동가의 논지를 부각시키는 장치로 느껴진다. 여기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가장 먼저 꼽히는 억압은 성적 대상화를 비롯해 자기와 몸 사이에 놓인 괴리를 체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 청소년이 왕성한 성욕을 가진 존재로 성적 주체화를 경험한다면, 여성 청소년은 유순한 존재로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17쪽)나, 2차 성징 이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26쪽)에 대해 인식할 것을 요구받는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미래를 예비하는 유예된 존재로서 어디서나 착하게 행동하도록 기대되는 여성 청소년은 몸을 유순하게 통제하되 또 외모는 끊임없이 계발해야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일차적인 몸

13)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 2.개별 심의기준 다항은 원래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混淫),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음란중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었다. 이 중 동성애만이 성소수자 진영의 격렬한 항의와 인권위의 권고로 2004년 4월 “대통령령 제18381호 일부개정”으로 삭제됐다.

에 대한 소외는 최근 10대 여성이 지금 당장 ‘꾸밈노동’을 중지하지는 ‘탈코르셋’운동에 가장 호응하는 것과는 관련될 듯하다.¹⁴⁾ 물론 이러한 해방의 기획 역시 남성에 비해 쓸데없는 노동이나 비용을 여성들만이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만 그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다시 “학교는 차별을 가르치는가”라고 심문하고, 여성 청소년에게 강조되는 용모규제에 대해 증언하고 나선다. 아이러니하게 꾸미지 않은 순수한 소녀는 더욱 성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기에,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는 유해한 채로 놔두고 그로부터 보호만 하겠다고 나서서는 해결 방법이 없음도 알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19세까지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청소년으로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문제는 보호받아야한다는 청소년이 아니라, 보호해야한다는 성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남성으로 상징되는 부르주아 시민은 그렇게 합리적인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 너무도 유해한 어른이 많은 세상에서 소녀는 청순하지만 또 그만큼 색시하고, 이렇게 여성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감각하는 사회에서 건전한 교제는 아예 생각될 수 없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책이 발신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듯 성별 질서와 국가 통제를 그대로 추인하는 교육은 결국 “순응하는 국민 혹은 인적 자원에 한정된 인간”만을 길러낸다(92쪽)는 것이다.

그렇게 주조된 자유롭지 않은 성인들이 과연 자유를 감각할 수 있는 공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에

14) 물론 외모자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내 자기전시를 통해 이미 콘텐츠 생산자이자 SNS 미디어 광고시장의 주역으로 10대 여성이 떠오르기도 했다. 최근 ‘폐북 스타’나 ‘스타 유투버’와 같은 위치를 얻은 소녀들은 정보자본주의의 첩병으로 화장품, 패션, 연예, 다이어트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소비시장을 스스로 창출하기도 한다. 이는 10대 여성에 대한 보호주의나 문체주의로 전혀 포착되지 않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성별체계가 구축한 여성성이라는 아성 속에 다시 자기의 기지를 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10대 여성의 디지털 노동에 대해서는 김애라, 『10대 여성의 디지털 노동과 ‘소녀성’』,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휴머니스트, 2018, 151~173쪽.

서는 순수하라고 요구받는 청소년이 19세를 기점으로 음란한 어른으로 돌변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금처럼 학교가 이분법적 젠더를 오히려 구조화시키는 교육을 고수하게 될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여성이 열외가 되거나 약하게 받으면,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받는다는 불만이 토로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넓은 의미의 통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명시적으로 남성 청소년이 차별받는다는 반감만을 촉발할 뿐이다.(97쪽)

그렇기에 여성 청소년들 스스로가 차별이 낳은 역설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분석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페미니즘 교육도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분법적 젠더와 그에 기반한 섹슈얼리티만을 보존하고자 하는 교육에서는 여성 청소년과 더불어 성소수자 학생들 역시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동성애자와 젠더퀴어, 그리고 트랜스 젠더를 포용할 교육은 고사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흐름이 최근 보수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와 더불어 뚜렷하다. 다수의 논리로 소수의 입을 막거나, 여전히 학교가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한, 여성 청소년과 성소수자뿐 아니라 때로는 여성 교사도 피해를 입는 상황(130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위계에 의한 통제에 기반한 교육에서 벗어나, 이제 서로의 차이를 탐구하고 자신을 기꺼이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세상 속에 살아남기”로 학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한 어른과 마주하면서 겪은 일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술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대부분의 성인들은 학교 이외의 공간에 이들 청소년이 존재함을 거의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학교 혹은 탈가정 청소년들은 미성년으로서 사회가 응당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책은 현실 속에서 이들이 살아남았던 순간을 담담히 적어내고 있다. 성희롱을 포함해 불법이기 때문에 더욱 가혹했던 청소년 알바의 현실(174쪽), 가출 청소년으로 거의 아무 것도 없기에 최후의 수단이었던 성매매(195쪽)를 해야했던 경험, 안식처라는

집에서 경험했던 친족 성폭력(207쪽)의 상처 등 어른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여성 청소년이 직면해야 했던 가혹한 장면들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이 책이 보여주는 청소년들의 자기서사는 파괴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려깊게 페미니즘을 만나거나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한 순간을 의미있게 짚어낸다. 근대적 학교와 이성애 가족이라는 제도가 교차하면서 가시화한 이들 여성 청소년은 사실 그 경계 밖에서는 오히려 보호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들 탈가정, 탈학교 청소년들이라는 개별적 주체는 한국 사회가 새롭게 해석해야 할 존재가 됐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은 차별금지법 하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중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가장 격렬히 반대되는 것은 정상적 성 규범만을 시민성의 자격으로 둔다는 데에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성적 실천을 부인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나’다울 수 있는 페미니즘은 무엇보다 이미 특정 젠더 역할로 범주화된 인간을 해체할 때에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4. 나오며: 혐오과 차별을 넘어

이 글은 스펙터클로서 『소녀들』의 재현을 넘어, 제도의 압박을 뚫고 『걸 페미니즘』이 선언되는 ‘지금-여기’를 연속적으로 읽어내고자 했다. ‘스쿨 미투’로 서두를 열었지만, 그야말로 여성으로 길러지고, 청소년으로 살아온 이들은 비단 학교만이 아닌 이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걸 페미니스트들은 예쁜 소녀도, 착한 딸도, 건전한 청소년도 아닌, 스스로의 욕망을 긍정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성 청소년을 단지 소녀로 재현할 뿐인 제도를 비판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로 성인여성보다 다른 어떠한 자기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세상 속으로 전진하는 걸 페미니스트를 담은 서사들, 즉 이들이 자신을 이입하고 또 다른 자기를 구성해낼 대안적 서사는 당장에 교과서

에는 없어보인다.

그렇기에 최근 청소년을 겨냥한 페미니즘 서적이 주로 10대 여성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페미니즘 서적들은 일단 평이한 수준에서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데 주력한다.¹⁵⁾ 발 빠르게 번역해서 내놓은 해외서적을 제외하고, 청소년 페미니스트라는 고유한 입지에서 제기할 수 있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는 아직 충분히 다루이지 못했다.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는 방식을 넘어 학교 안팎의 성차별적 비민주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여전히 요원하다. 그렇기에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넷으로 그리고 광장에서 출몰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주장되는 페미니즘은 또래사이에서 더욱 호전적이 되어간다.

그렇다고 할 때 『소녀들』뿐 아니라 『걸 페미니즘』도 모두 ‘촛불소녀’, 즉 정치하는 여성 청소년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이 의미심장하다. 만일 여성 청소년의 눈으로 학교를 넘어 사회 곳곳의 문화를 바라볼 때 어떤 광경이 포착될까. 어른 혹은 남성의 시각으로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낯설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나 2015년 이후 ‘메갈’이 페미니즘의 이름을 대신하여 남성들, 특히 남성 청소년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는 동안, 비교적 일찍 독학으로 페미니즘을 접한 여성 청소년들은 욕설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페미니즘 교육이 학교에 필요함을 주장하는 일선 교사들 너머에 여성혐오를 엔터테인먼트의 한 형식으로 공유하는 남성 청소년, 그리고 그들과 일정 정도의 남성 문화를 공유하는 일부 교사들도 같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 페미니즘은 청소년 여성운동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15) 이 글에서 서평의 대상으로 다룬 두 권 외에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과 페미니즘에 관한 내용을 다룬, 비교적 최근 발간된 책은 대략 다음과 같다. 초등성평등연구회, 『학교에 페미니즘을』, 마티, 2018, 홍혜은 외 9명, 『페미니스트 선생님 이 필요해』, 동녘, 2017, 김교연주, 『나의 첫 젠더수업』, 창비, 2017, 정희진 외 11명,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 우리학교, 2017 등등.

‘스쿨 미투’ 역시 아버지 세대의 권위가 유래하는 민주화가 어떤 영역에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탈정치 시대의 정치로 상찬됐던 촛불소녀가 배운녀자가 되고, 또 메갈리안이 될 동안 그를 진지하게 다룬 서사는 쉬이 찾아볼 수 없었다.¹⁶⁾ 이제 재현과 제도를 넘어 걸 페미니스트, 이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때 미래를 감지하는 정치적 주체로서 여성 청소년을 전면화한 서사가 발맞춰 등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여기’의 사회와 민족, 그리고 국가를 상대화하는 모두의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때 문학은 제도화된 재현으로 잘못된 여성을 그려내고 있다는 걸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지도 모르겠다.¹⁷⁾

참고문헌

1. 자료

조혜영 외 9인 지음, 『소녀들』, 도서출판 여이연, 2017.

호야 외 26명 지음, 『걸 페미니즘』, 교육공동체벗, 2018.

로앤비 청소년보호법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9A6EAEF8171D_0

16) 2000년대 여성작가가 그려낸 몇몇 청소년 문학에서 소녀들은 반란하는 능동적 주체로 야심차게 등장하지만, 저항의 세속화라 할만큼 도전의식과 자신감으로 어떤 경계라도 넘나드는 자기계발적 존재로 활약하기도 한다. 쉽게 전복하고 성취하는 이들 주인공들은 청소년의 삶을 자기실현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권력의 효과이지는 않은지 의심되기도 했다. 관련해서 김은하, 『청소년 문학과 21세기 소녀의 귀환』, 『여성문학연구』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293~326쪽.

17) 최근 여성·십대·몸에 관한 다섯 개의 시선이란 부제로 당대 여성 청소년을 5편 소설 모두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그날 밤 우리는 비밀을』(우리학교, 2018)이 발간되기도 했다. 각 소설은 학교 내 차별,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동성애 등에 스스로의 방법으로 맞서는 여성주체를 그려내고 있다.

2. 단행본

- 고길섭,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진보평론』, 진보평론사, 1999, 173~195쪽.
- 김애라, 『10대 여성의 디지털 노동과 ‘소녀성’』,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휴머니스트, 2018, 151~173쪽.
- 김혜원 외 4명, 『그날 밤 우리는 비밀을』, 우리학교, 2018, 1~176쪽.
- 류진희, 『그들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말, 메갈리아 미러링』,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2016, 126~151쪽.
- _____, 『넷-광장 페미니스트, 전사들의 등장』, 『문학3』 제3호, 창비, 2017, 44~47쪽.
- 앵거스 맥래런, 『20세기 성의 역사』, 임진영 역, 현실문화연구, 2003, 45~83쪽.

3. 논문

- 김은하, 『청소년 문학과 21세기 소녀의 귀환』, 『여성문학연구』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293~326쪽.
- 김주희, 『오늘 왜 페미니즘은 혐오와 접속했는가 - 『말과 활』 2016년 가을 혁신호 발간 기념 토론회 후기』, 『말과 활』 제12호, 일곱번쨌순, 2016 겨울, 105~113쪽.

Abstract

Girl Feminists Making a Leap beyond Representation and Institution

- Book review: Girls (Yeo Iyeon, Sep. 2017), Girl Feminism (Communebut, Feb. 2018)

Ryu, Jin-Hee

Recently in “School Me Too” movement, teenage girls have been starting to make their voices heard amid the age of “Feminism Reboot,” or the prevalence of feminism in society. This study analyzed the two books that depict female adolescents—who have long been invisibilized where dichotomous gender meets social authority—as a subject of representation and a main agent of movement. *Girls* (Sep. 2017) and *Girl Feminism* (Feb. 2018) published near the end of last year and early this year set forth female adolescents as a subject of active interpretation in feminism, serving as a spectacle of neo-liberalism, or a new agent of feminism with emphasis on staying true to “myself.” This study examined how the agents are created beyond representation and institution, and investigated a new type of narration as an institutionalized representation that differs from the literary canon.

Key words : female adolescent, girl, feminism, girl feminism, Juvenile Protection Act,
School Me Too

■ 본 논문은 2018년 7월 25일에 접수되어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